

최초 최초 최초... 이정재·정호연, 美배우조합상 남녀연기상

TV 부문 아시아 국적 배우 최초 수상

영어 아닌 타국가 언어 드라마로도 처음

TV드라마로 한국배우 수상 최초 영예

배우 이정재(50)와 정호연(28)이 미국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 각각 TV 부문 남자 연기상과 여자 연기상을 받았다. 한국배우가 시상식 TV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이정재와 정호연이 최초다.

또 이 부문에서 아시아 국적 배우가 상을 받은 것도 이정재와 정호연이 최초다.

이정재는 27일(현지 시각)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타모니카에서 열린 제28회 미국배우조합(Screen Actors Guild·SAG) 시상식에서 브라이언 콕스, 키어린 컬킨, 제레미 스트롱, 빌리 크루덱을 제치고 TV 부문 남자 연기상을 받았다. 정호연은 제니퍼 에니스턴, 엘리자베스 모스, 세라 스누크, 리즈 위더스

퐁과 경쟁해 여자 연기상을 차지했다.

이정재와 정호연은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이름이 불리자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다. 시상대에 오른 이정재는 “오 세상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큰 일이 제게 벌어졌다”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이어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수상 소감을 꺼낸 뒤 “진짜 많이 써왔는데 다 잊지 못하겠다. 너무 감사하다. SAG 감사하고,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 준 전 세계 관객에게 감사하다. ‘오징어 게임’ 팀 너무 감사다”고 했다.

정호연은 무대에서 결국 눈물을 쏟았다. 그는 “감사하다. 여기 있는 많은 배우들을 관객으로서 TV에서 스크린에서 많이 봤다”며

“항상 그 분들을 보면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정호연은 영어로 “꿈을 꾸게 해주고 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 ‘오징어 게임’ 팀 너무 감사하다”며 배우 이름을 하나 하나 호명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엔 이정재·정호연과 함께 박해수·김주령·아누팜이 함께 참석했다. 두 사람이 이름이 차례로 호명되자 세 배우 역시 감격하며 축하했다.

SAG에서 한국 배우가 상을 받은 건 2020년 영화 부문 앙상블상을 받은 ‘기생충’, 지난해 ‘미나리’로 영화 부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이후 세 번째다.

다만 수상 범위를 TV 부문으로 좁히면 이정재와 정호연이 최초다. TV 부문엔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후보에 오른 적도 없었다. 산드라 오 등 아시아계 배우가 SAG TV 부문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아시아 국적 배우가 상을 받은 건 이정재와 정호연이 역시 최초다.



‘오징어 게임’은 앞서 스탠트연상 부문에서도 상을 받아 4개 부문 후보에 올라 3관왕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상식 최고상인 앙상블상도 받게 되면 4개 부문 후보에 올라 4관왕을 차지하는 역사를 쓰게 된다.

영탁, ‘6시 내고향’ 출격...완도 홍보대사 열일



가수 영탁이 ‘전복의 고장’ 완도를 찾았다. 3월 2일 오후 6시 방송되는 KBS1 ‘6시 내고향’에 출연했다.

오늘 오후 6시 방송

향에는 가수 영탁과 마아성, 신성이 출연한다. 28일 공개된 예고 영상 속 영탁은 “전복을 지금 손질하러, 파리는 거다”라며 시작부터 설렘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맑은 하늘과 바다 풍경이 감탄할 영탁은 배안에서 구명조끼와 고무장갑을 낀 채 전복을 들고 생생한 현장감으로 ‘전복 먹으러 갈래’를 열창하며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탄생시켰다는 후문이다.

한편, 지난 18일 완도 전복 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탁은 어업인들과 지자체를 위해 ‘6시 내고향’에 출연했다. 이날 영탁은 ‘6시 내고향’을 통해 어업인과 지자체 홍보에 적극 동참하며 완도 전복 홍보대사로서 훈훈한 행보를 펼친 것으로 알려져 공감을 모은다.

완도=이민혁기자

현빈·손예진, 식 앞두고 날짜·혼수 각종 설설설 ↑



3월에 들어서면서 톱배우 커플 현빈·손예진의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1일 연예계에 따르면, 두 사람이 오는 30일 서울 광장동 웨다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 에스

비공개 진행 예정

톤하우스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설이 최근 나왔다. 지난달 현빈과 손예진은 3월에 결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알리지 않았다. 비공개로 가족, 친지, 지인들만 초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결혼식 날짜를 보도한 매체는 산 중턱에 위치한 웨다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 에스톤하우스가 보안이 좋아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국내 톱배우 결혼의 시초 격으로 하객과 시민이 4000명이나 몰린 신성일·염영란(1964년 결혼)의 세기의 결혼식도 워커히 호텔에서 열렸다.

하지만 지난달 결혼식 장소에 이어 최근 날짜까지 일부에서 못 박으면서 양측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두 배우의 소속사는 비공개 예식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두 배우의 세기의 결혼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신혼집·혼수 등과 관련 다양한 내용과 목격담을 쏟아내는 중이다.

1982년생 동갑내기 두 사람은 2018년 영화 ‘협상’에 함께 출연한 뒤 인연을 맺었다. 2019년 방송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또 한 번 함께 출연하면서 수차례 교제설은 물론이고 결혼설까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1월 결국 인정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설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엔 한 네티즌이 제주도에서 손예진과 현빈이 지인 펜션에 왔다가 두 사람에게 받은 사인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을 비롯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던 만큼 소셜 미디어에서 해외 팬들과 외신들도 주목하고 나섰다.

송가인 ‘위안부 기림 노래’, 日 여가수가 일본어로 부른 이유

“한일간 문화적 가교 역할 하겠다”

일본인 엔카 가수 아리아가 가수 송가인이 부른 위안부 할머니 기림 노래 ‘시간이 머문 자리’의 일본어 버전을 불렀다.

1일 유튜브 ‘폴피리프로젝트’에 따르면, 아리아가 송가인의 ‘시간이 머문 자리’를 일본어로 개사해 부른 ‘기억’이 최근 이 채널에 공개됐다.

‘시간이 머문 자리’는 지난해 김학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린 지 30주년이 되는 해와 평화의 소녀상 제작 10주년을 맞아 제작됐다. 김 할머니를 비롯 위안부 피해를 알린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1절을 맞아 일본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렸다는 사실에 감사의 댓글 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리아는 “한·일 갈등이나 민족적으로 서로

다른 감정이 있지만, 이 사안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나도 그녀의 할머니처럼 폴피리프로젝트가 진행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머문 자리’를 듣는 순간 답답했던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 노래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 이뤄지고, 할머니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리아는 지난 2005년 ‘도요요 해협남선’으로 데뷔했다. 2011년 한국에 가수로 초대받았고 2017년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한국 활동을 계획해 왔다.

수어 1급 자격증도 갖고 있는 아리아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한다”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메시지와 한·일간 문화적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슈퍼주니어, “퍼포먼스 없어도 통하네”

그들 ‘슈퍼주니어’가 세계적인 이름값을 확인했다.

1일 소속사 레이블 SJ에 따르면, 전날 발매된 슈퍼주니어의 스페셜 싱글 ‘더 로드 : 윈터 포 스프링(The Road : Winter for Spring)’이 아이튠즈 20개 지역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브라질·칠레·과테말라·홍콩·인도네시아·일본·마카오·말레이시아·멕시코·파라과이·페루 등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이를 포함 총 27개 지역에서 톱 10을 달성했다. 이번 스페셜 싱글의 타이틀곡 ‘콜린(Callin)’은 아픔의 반복이었던 연애의 기억을 섬세하게 노래한 팝 록 장르의 곡이다. 켄지(KENZIE) 프로듀서의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에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감미로운 보컬을 더했다. 슈퍼주니어는 오랜만에 퍼포먼스가 없는 곡을 들고 나왔다. 수록곡 ‘아날로그 그라디오’에서도 성숙한 감정을 노래했다.

황대현·최민정 ‘집사부’ 출격...빙판과 달리 NG 연속



‘집사부일체’에 금빛 사부들이 출격한다.

오는 6일 방송

오는 3월 6일 방송되는 SBS 예능 ‘집사부일체’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현, 최민정이 동반 출연한다. 두 사람이 함께 예능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동반 출연 소식은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 27일 공개된 두 사람의 예고 영상은 하루 만에 주요 포털과 SNS 상에서 15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영상

속 화기에 비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훈훈함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제작진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빙상에서의 거침없는 모습과는 180도 다른 만전 매력을 보였다”며 “이름인 ‘대헌민정’도 겨우 수줍게 외치는가 하면 어색해 NG를 내기도 했다”고

한편, ‘집사부일체’는갈팡질팡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느낌표’가 될 사부와의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방송.